

“교회가 영적 치열함을 놓치면 복음 사라져”

미주평안교회 창립 50주년 노진준 목사 초청 부흥집회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노진준 목사를 초청해 28일(금)부터 30일(주일)까지 총 다섯회에 걸쳐 부흥집회를 개최했다.

세 번째 집회가 열린 3월 29일(토) 저녁 6시 노진준 목사는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라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여기가 좋아서 살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주의 제자로 살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주의 종이 되었다고 했을 때 일종의 신분 상승으로 여긴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능력, 주권에 기대어 그것을 누린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면서 “바울은 유대인 중 유대인,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으로, 당대의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노진준 목사(순회설교가)를 초청해 부흥집회를 개최했다. ©기독일보

헌신했다. 바울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고 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신분 상승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는 것”이라면서 “그리스도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만 높아져야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교회에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한국 교회에서 종종 발생하는 오해에 대해서 언급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의 복을 누리게 되면서 ‘나’를 위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다. 옛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사

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부흥하면 서부터 교회는 영적 치열함을 포기하고 누리기 시작했다”라며 “최근에 젊은 목회자들을 만나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한다. 제가 누렸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 목회자들은 힘든 길을 가야 하는데,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평안교회 성도들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느껴진다”라며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이다. 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한다”고 설교를 마쳤다.

미주평안교회는 4월 15~19일(토) 고난주간 특새를 진행하고, 부활절인 4월 20일(주일) 오후 4시에 50주년 임직식 및 음악회를 연다.

1975년 1월 5일 창립된 미주평안교회는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신조로 삼으며 개혁 복음주의에 입각하여 복음적인 신앙노선을 따른다.

토마스 맹 기자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행복한 ‘국민 멘토’ 김미경



김미경 강사는 개인이 지닌 자원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몰아가는 시스템의 일부로 살아왔다며 결국 이 삶이 자기착취의 삶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기독일보

굿네이버스 USA(회장 이일화)가 국민 멘토로 알려진 김미경 강사(MIYU 대표)를 초청해 ‘더 행복한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는 주제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3월 28일(금) 오후 7시 에브리데이교회, 29일(토) 오후 4시 엘바인온누리교회에서 토크쇼를 이끌었다. 김미경 강사는 3월 30일(주일) 엘바인온누리교회 제3주 일예배에서 그의 첫 간증을 나누며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랐고 언니가 목사였음에도 자신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치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 부치는 ‘자기계발’이라는 시스템의 일부로 살아 왔다고 말했다.

충북 증평군 출신인 김미경 강사는 “제가 시골에 태어나서 몸 하나 들고 서울에 와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재료를 다 끌어다가 세상에 적용해 살면서 저를 만들었다. 엄마가 저를 위해 ‘기도한다’ 하실 때, 짜증이 났다. 저를 바친다고 하시면 더 짜증이 났다.”고 했다.

주디 한 기자→ 2면에서 계속

美 텍사스주지사, 대형 모스크 건설 프로젝트 수사 지시

“잠재적 범죄에 해당 위법자 심판받게 할 것”

미국 텍사스 주지사는 델러스에 자리한 49만 평 규모의 이슬람 단지에 모스크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잠재적 범죄 활동’에 해당된다고 수사 지시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텍사스주 그레그 애벗(Greg Abbott) 주지사는 3월 31일 수사기관인 텍사스 레인저스에 ‘이스트 플레인노 이슬람 센터’(East Plano Islamic Center, 이하 EPIC)와

모스크 계열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EPIC가 잠재적으로 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델러스에서 북쪽으로 약 20마일(약 32km) 떨어진 EPIC는 콜린과 헛트 카운티에 걸친 약 49만 평부지에 1,000채 이상의 주택, 모스크, 이슬람 학교, 병원, 상점, 공원, 요양원을 갖춘 자립형 마을 건설을 위한 ‘EPIC 시티’와 ‘EPIC 랜치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무슬림 사업이다.

애벗 주지사는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기소 사항은 추가 조치를



텍사스주 그레그 애벗 주지사. ©kxan.com 보도화면 캡처

위해 해당 검찰 당국에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신 미셸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태양광, 솔라!!
☑ 상임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025년 대박
BTS SOLAR DESIGN 213.500.8000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현)남가주 교외협의회 고문 변호사
(현)제미발행기 협회 고문 변호사
(현)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 활짝 열림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래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투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하늘바라기



©istockphoto.com.

구속

- 김은주

공공 묶여도 좋다
결박당해도 좋다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니까 좋다

하나님 은혜의 구속
예수님 사랑의 구속
성령님 내주하심의 구속

→ 1면 기사 <‘아픔’을 나눔으로써...>에 이어서
그는 “텍사스 레인저스에 잠재적인 형법 위반 혐의로 EPIC 단지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텍사스는 EPIC 관련자들 중 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나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PIC에 대한 최근 조사는 텍사스 인력위원회, 텍사스주 증권위원회, 텍사스장례서비스위원회 및 켄 팩스틴(Ken Paxton) 법무장관 사무실을 포함한 잠재적인 위반 사항에 대한 일련의 주정부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에벗 주지사는 최근 12개 주 기관이 EPIC 및 산하 기관이 수행한 잠재적인 불법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3월 31일 매기니의 콜린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카운티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EPIC 개발에 대해 좌절, 우려 또는 지지를 표명했다.

콜린 카운티의 크리스 힐 판사가 주재한 청문회에는 당초 EPIC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투자 그룹 ‘캐피탈 파트너스 커뮤니티’(CCP)의 프레젠테이션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힐 판사는 “CCP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으며, 프레젠테이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오늘 현재까지 카운티에서 제안된 부지 개발에 대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았으며, CCP에도 신청서 제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CCP가 토지 인수를 완료했으며, 그룹은 추가 조치에 대한 일정 없이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프리스코에 위치한 킹덤라이프(Kingdom Life)의 브랜든 버든(Brandon Burden) 목사는 “텍사스 공정 주택법과 1965년 시민권법 위반 가능성 등 EPIC 프로젝트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100년짜리 노동자로 무지하게 수고하다 죽는 삶

→ 1면 기사 <‘아픔’을 나눔으로써...>에 이어서
“저는 ‘내’가 강한 사람이었다. 나를 써서 내가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매번 매일 확인하는 게 제 일이고 그것을 갖고 강의하는 게 제 일이었다. 저는 32년간 인간 사용법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강의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멀다. 저는 하나님과 멀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연대 음악과에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꼴찌로 붙여주세요’라고 기도하셔서, ‘엄마는 왜 나를 꼴찌로 붙으라 그래?’라고 물었더니, ‘가만 있어, 엄마는 하나님을 알아. 꼴찌로 붙여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붙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연대 음대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학생들 위해 새벽 4시부터 편지를 썼다

강사가 되기 전,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고,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학생들을 위해 학부모에게 편지를 썼고, 그것이 자신이 강사의 길에 접어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집에 피아노를 갖다 놓고 집에서 24명을 가르쳤다.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신고해서 쫓겨났다. 29살, 피아노 학원을 하게 되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편지를 썼고 수강생이 200명이나 됐다. 성공 사례를 발표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됐고 결국 강사가 되었다.”

“그 후로부터 10년 후에 첫 책을 썼다. 그 책을 쓸 때 너무 쉽게 썼다. 한 달 만에 쓱쓱 써서 냈다. 그 책을 쓸 때 이런 생각이 머리에 스쳤다. 지금 이 책 쓰는 거 아니야, 편지 쓸 때 이미 다 쓰여졌던 것이다. 보이는 것은 이것(편지 쓴 것)인데, 보이지 않는 데에서 이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루어져 있다.”

코로나 때 직원이 100명으로 늘 정도로 사업이 성장했으나, 그 성장이 결국 자신의

건강과 가정을 갈아 넣은 결과였음을 깨닫게 된다.

그는 자아가 강했기에, ‘자기 비움’을 이야기하는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교회 나가면 자기를 죽이라고 한다. ‘내가 이렇게 이뤄놓은 게 많은데 나에게 죽으라고? 미쳤어? 내가 왜 (교회에) 나가?’”

바닥을 쳤을 때 걸려온 전화

제가 바닥을 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할 때 언니에게 전화가 왔다

“코로나 때 강의를 없어졌다. 바로 그다음 날부터 코딩을 배웠다. 나이 60 다 먹은 여자가 코딩을 배우나? 코딩 배워서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었고, 코로나 기간 직원이 100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고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자기 계발은 어떻게 하면 이 ‘it’(자기가 성취해 얻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리려는가를 끊임없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야기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 했던 사람이다. 전 세계적으로 40-50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대학을 만들었고 저는 사명감을 갖고 잘하고 싶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가? 이게 주인이 되었다. 이게 it의 세상이고 사탄이 만든 세상이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모두 100년짜리 노동자로 무지하게 수고하다 죽는 거구나. 수고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내가 ‘내가 만든 회사’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가 되었다. 100명 월급 주려고 월급 189, 몸무게 74킬로, 자기를 살필 수 없었다. 돈을 엄청 벌기 위해 집중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갖다 쓰게 된다. 가족과 건강을 갖다 쓰게 된다. 참 신기하다. 하나 이루다가 여덟 가지가 망가진다. 그게 수고로움의 정체이다. 그것을 몰랐다. 열심히

히 끝까지 가보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았다. 가봤더니 어떤가? 제 건강은 엉망진창이고 월급 줄 돈이 모자라서 집에 못 들어가고 몇 달 동안 밤을 새우며 일하는데, 이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다. 할 바를 다 했는데 왜 망가져 있을까? 끝까지 갔는데 다 망가져 있었다. 열심의 끝이 여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나는 더 열심히 못살아. 그날 제가 바닥을 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울고 있는데 언니에게 전화가 왔다.”

밝혀진 출생의 비밀

“언니에게 부재중 통화가 와 있어서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나 좀 살려줘’가 내 첫 마디였다. 언니가 밤 11시에 대전에 올라왔다. 언니가 나를 위해 영접 기도를 했다. 59세에 영접 기도를 받았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살려주세요 하고 울었다.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 기도를 받고 언니가 내려갔다. 언니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예배 끝나고 나서 언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딸이 돌아왔어’하는 순간,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눈물이 터졌다. 엄마 아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출생의 비밀을 그때 알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 나타난 그의 삶의 변화에 대해 간증했다.

“it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고, 어떻게 더 내 뜻을 펼칠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주인 됨을 엄청나게 키우며 살아간다. 59세에 알았다. 내가 하나님 딸이라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었다.”

이번 굿네이버스 USA가 주최한 토크 콘서트의 수익금은 굿네이버스 USA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을 위한 쉼터에 100% 지원된다.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웰다잉 세미나’ 개최

사전 의료지시서 필요성과 중요성 알려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는 지난 4월 1일, ‘웰다잉(Well-Dying): 나의 미래 의료 결정을 준비하세요’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간호학과 디렉터인 이영주 교수가 직접 강연했으며, 현장과 온라인(ZOOM)을 통해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영주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본인이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미리 작성하는 ‘사전 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전 의료지시서는 본인이 원하는 의료처치를 미리 기록하고 이를 대신 결정해줄 의료 대리인을 지정하는 문서로, 각 주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연방정부와 모든 주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고 안내했다.



이영주 교수(WMU 간호학과 디렉터). ©WMU

또한 생명유지 치료를 위한 의사 지시서(POLST: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와 건강관리 법적 위임장(POAHC: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에 대한 개념과 작성법을 소개했으며, 응급상황 시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 시행과 그것의 반

대인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금지 지시서)의 의미와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장기기증과 장례 계획 등 자신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며, 사전 준비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본인의 뜻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인지 기능이 정상일 때 환자의 의향을 가족들과 논의해 보고 이를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웰다잉은 죽음에 대한 준비일 뿐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삶의 마무리 과정”이라며 이번 세미나의 핵심과 취지를 밝혔다.

김민선 기자

NEW COVENANT ACADEMY

CELEBRATING 26 YEARS

AN IB WORLD SCHOOL

- RIGOROUS ACADEMIC PROGRAM
- EFFECTIVE AND CARING TEACHERS
- SAFE AND NURTURING CAMPUS
- AFFORDABLE TUITION
- SOLID CHRISTIAN EDUCATION
- 100% UC ACCEPTANCE
- 10:1 STUDENT-TO-TEACHER RATIO
- WASC ACCREDITED
- SENIOR SAT AVERAGE: 1370

ENROLLING NOW! K-12

Voted #6 Best Christian High School in CA

FOR MORE INFO

SCAN ME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213) 487-5437
NCAHUSKIE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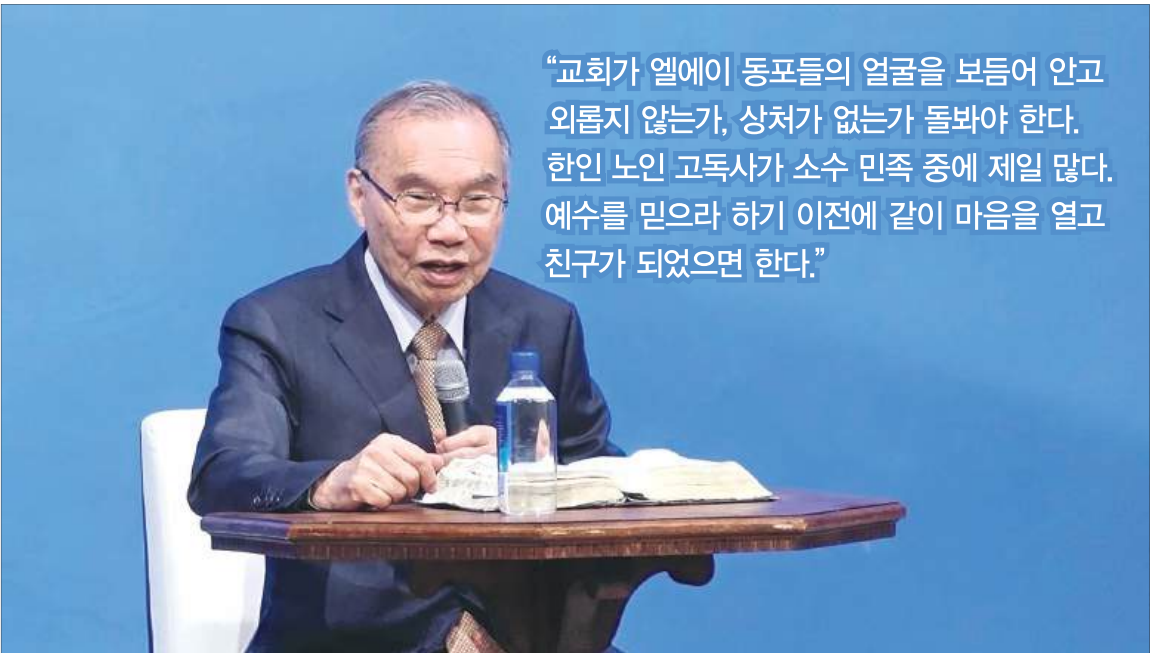
“고독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었으면”

사우스 패서디나에 자리한 평강교회(송금관 목사)는 3월 31일 오후 7시, 김진홍 목사(두레공동체운동본부 대표)를 초청하여 집회를 열었다.

30세 청계천 빈민촌에서 교회 개척 김진홍 목사는 이날 30세에 청계천 빈민촌으로 들어가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마을 청년들과 함께 넘마주이 생활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 그때, 인생의 밑바닥에서 시작할 일이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그 시절 겪은 고통과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청계천에서의 삶을 생생하게 풀어내며, “쓰레기통 뒤지다 보면 때때로 사람 시체를 발견하곤 했고, 나도 열병에 걸려 40도 고열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며 “병원에서 고기를 많이 먹고 폭 쉬라는 말을 들었다. 이 동네에서 계속 살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교회를 경로당에 기증하고, 교회 간판을 내리고 집을 써서 떠날 결정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날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었다. 내가 떠날 수 있을까라는 고



평강교회는 김진홍 목사를 초청하여 집회를 열었다. ©기독일보

민을 하면서, 결국 밤이 되어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때 아이들이 흠이지 않고 모여 놓고 있었다”며 “한 집에 아이들 소리가 들려서 잠깐 들리게 됐다. 다섯 남매가 며칠 굶어 힘이 없어서 누워 있었다. 세살짜리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한 것 같았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졌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 간판을 걸고, 아이들에게 물국수를 먹이며 기도했다. ‘눈물 닦아시는 예수님,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엄마를 찾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했다.”

김진홍 목사는 북한선교와 탈북자 지원 사역을 언급하며, “우리 하나님

은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있다는 얘기를 듣고, ‘도울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중국에 갔다. 두만강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다. 중국쪽에 십자가가 보여 조그마한 농촌교회에 가게 됐다. 중국 목사가 시무하는 곳이었다. ‘저는 남조선에 온 목사입니다. 북한을 도울 길이 없는데 두만강을 걷고 있

습니다’라고 했는데 마침 탈북한 19세 아가씨가 있다고 해 만나게 됐다. ‘어찌하여 두만강 건너서 나오게 되었냐’고 했는데, 가족들 살리려고 건너오게 되었다고 했다. 엄마는 먼저 죽었다고 하면서, 먹을 것 생기면 자기는 안 먹고 아이들을 먹이고 굶어 죽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언이 ‘동생들 먹여 살려라’는 것이었다”면서 “마침 주머니에 있는 돈 2천 달러를 주면서 ‘통일이 될 때까지 죽지 말고 만나자’고 하는데 달러를 얼굴에 묻고 한량없이 우는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동생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눈물을 잊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목회했다.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교회가 엘레이 동포들의 얼굴을 보듬어 안고 외롭지 않는가, 상처가 없는가 돌봐야 한다”며 “미국 캐나다의 한인 노인 고독사가 소수 민족 중에 제일 많다. 예수를 믿으라 하기 이전에 같이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었으면 한다.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2024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단체 87곳 선정

2024년도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 87개 단체에 44만 달러 지원 결정
역대 최대 103개 단체 지원 신청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커뮤니티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오픈청지기 프로그램(Open Stewardship Program)이 올해 역대 최대 지원단체를 기록했다.

매년 커뮤니티를 향한 사회환원에 힘쓰고 있는 오픈뱅크(회장 민김)와 오픈청지기재단은 31일 2024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의 수혜단체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2024년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에는 역대 최대인 103개 단체가 지원을 했으며 지원단체로 결정된 비영리단체도 총 87곳으로 지난 2011년 프로그램이 첫 시행된 이후 역대 최대 수혜단체수를 기록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 되는 단체도 20곳이나 된다. 87개 단체에 지원되는 총 지원금은 44만 달러다. 오픈뱅크가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수익의 10%를 매년 오픈청지기재단에 기부를 시작한 뒤 14년 동안의 누적 기부금은 1875만 달러를



넘어섰고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재단이 커뮤니티에 기부한 누적 기부액도 650만 달러를 돌파했다.

오픈청지기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말까지 2024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특히 2024년 프로그램부터는 모든 신청을 웹사이트와 이메일을 이용하는 온라인 접수만을 시행했다. 온라인 접수로 인해 한인 단체들 뿐만 아니라 타 커뮤니티에서의 신청도 눈에 띄게 늘어 역대 최대 신청수를 기록했다.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게 되면서 재단은 구비 서류 제출 여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했고 신청 단체들과의 소통 및 연락도 이메일을 주로 사용했다. 이는 비영리단체들이 다른 기업, 단체 및 개인, 기부

자들에게도 잘 준비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서류 구비 능력과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오픈청지기재단은 또한 최근 새로운 이사로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등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했다. 재단은 새로워진 이사진이 보다 다양하며 신선한 의견들을 수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기획, 추진할 계획이다.

오픈뱅크의 민 김 회장은 “올해는 모든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하고 서류도 100% 디지털화를 하면서 오픈청지기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오픈청지기재단의 이사진도 새롭게 구성이 되었는데 새로운 리더십들과 함께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더 발전되고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셉 리 기자



좋은비전교회 시니어 아카데미 개설

오렌지카운티 라하브라에 위치한 좋은비전교회에서는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시니어 아카데미를 개설하였다.

3월 16일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45분까지 노래교실(강사: 김명옥), 캘리그래피(강사: 박양자), 탁구교실 등이 진행된다.

좋은비전교회 최준우 담임목사

는 ‘새봄을 맞아 시니어 아카데미를 열게 되어 감사하며 어르신들이 함께 배우며 새로운 삶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등록비는 무료이며 75세 이상의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교회 주소: 1601 West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문의: 714-388-6547(신현우 목사, 남만식 장로)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SMG 서울 메디칼 그룹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국제 이스라엘 컨퍼런스, 교회의 마지막 시대 사명 다룰 것

4월 22일~25일(화~금)
은혜한인교회서 개최
뮤지컬 영화 ‘룻기 One New Man’의 최혁 목사 인터뷰

LA 국제 이스라엘 컨퍼런스가 4월 22일부터 25일(화~금) 매일 오전 8시 50분~저녁 9시 30분까지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개최된다. 내년 오순절에 이스라엘 감람산에서 개최될 ‘마라나타 대 합창제’를 위한 예비 행사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다양한 국적의 세계적인 신학자들과 현재 이스라엘 사역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다양한 주제 강의를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25일에 감람산 대합창제 설명회(9시) 및 기독교 최초 뮤지컬 영화 ‘룻기 One New Man’(오후 2:30)이 상영된다. 영화 ‘룻기 One New Man’를 감독한 최혁 목사가 이번 컨퍼런스 준비를 위해 LA를 방문해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리고 있다. 기독일보에서는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 최혁 목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컨퍼런스의 주된 목적과 일정은?
1) 이번 컨퍼런스는 매우 특별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종말에 대해 교회를 넘어 전 세계 과학자와 환경과 사회, 인류학자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의 재림에 대하여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은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모습으로 잘 준비되었을까? 오래전 강당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재림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번 컨퍼런스는 내년 오순절 이스라엘의 감람산에서 있기 될 ‘마라나타 대 합창제’를 위한 행진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과 예정, 계시와 성취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신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 알기 원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다. 4개의 복음서와 로마서 정도면 충분히



LA 국제 이스라엘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최혁 목사(대만 선교사, 뮤지컬 영화 ‘룻기 One New Man’의 감독). ©기독일보

다. 그렇다. 성경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모든 큰 그림을 이해할 때 비로소 성도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바른 사명감을 갖게 된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계시록의 말씀이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다시 말해 초림과 재림은 반드시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다. 이 주장은 성경 전체에 포괄적으로 기록된 큰 그림이다. 따라서 내년 감람산 위에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큰 예배를 드리기 전, 중화권의 길목인 대만과 선교역사가운데 영적 안디옥 역할을 해온 미국에서 컨퍼런스를 갖는다. 먼저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들을 잘 알아야 내년 마라나타 대회가 더욱 성명하고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컨퍼런스를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성취가 어떤 방식으로 완성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2) 일정은 4월 22일~25일까지(화~금)이다. 매일 오전 8시50분~저녁 9시 30분까지 화,수,목,금까지 진행한다. 특별히 금요일 오전 9시부터는 내년 오순절 마라나타 대합창제에 대한 브리핑하는 시간과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이스라엘을 위한 기업모임의 간담회가 있다.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는 전 세계 최초라 할 수 있는 룻기 뮤지컬 영화인 ‘

룻기 One New Man’가 상영된다. 또한 저녁 7시 30분부터는 “동양의 원들라”의 실제 이야기 뮤지컬 ‘생명의 도장’이 공연된다. 강연에 참여하는 강사진들 소개를 한다면. 이번 컨퍼런스 강사진은 세계적인 신학자들과 현재 이스라엘 사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싶은 분이나, 반대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어떤 강의가 있을 예정인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민족을 세우신다. 따라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만 민족을 나누고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은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릴 것이다. 2000년 전 온 열방을 위해 이스라엘이 흠여졌다. 그리고 온 열방이 주님이 돌아오는 때, 흠여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를 덮고 있는 언약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교회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머리삼아 한 몸, 한 성전, 한 교회임을 알리는 대회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선교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다. 지금 시대에 이




LA 국제 이스라엘 컨퍼런스 등록

슬라엘 선교가 필요하고 언급되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찬성하는 반대하든지 모든 신학과 다양한 교파가 있는 것은 결국 하나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이다. 어떤 방법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일까? 질문한다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1차적인 올바른 해석이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의 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성경이 전하려는 중심적인 의미를 왜곡시킨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 신학적인 바탕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날 성경의 신학적 체계를 무시하고 개인의 영적 체험들만 강조하다보니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 해석에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이스라엘의 중요성은 어떤 신학자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또한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들에 대한 시간표이다. 그 시간들을 모르면 교회는 반드시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신앙으로 변질된다.

2026년 이스라엘 감람산에서 열릴 마라나타 대합창제를 설명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에서 복음이란 초림만이 아닌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까지 잘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십자가의 은혜만 말하지 다시 오실 주님의 날에 대하여 잘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균형감은 초림과 재림의 중간 지점에서의 올바른 균형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현실적인 문제만 집중하고 있는 현실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다. 오랫동안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호와 전혀 다르게 변화되지 않은 것은 주님의 날에

대한 준비함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날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대한 관점과 내일이 언제나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관점은 천지 차이이다. 내년 오순절 마라나타 대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단 한번도 없었던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교회로의 회복과 갱신의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다. 종말에 대하여 언급하면 시한부 종말주의, 극단적 문자주의, 세대주의라고 말하지만 묻고 싶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대하여 절대로 침묵하라는 것인가?’ 만약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교회는 절대로 주의 날에 대하여 침묵할 것이다. 그런 교회에 대하여 성경은 기름 없이 꺼진 등잔만 들고 있는 신부라고 한다. 우리는 주의 날을 위해 성가대가 본 예배를 준비하듯, 제사장들이 온전한 제사를 위해 준비하듯, 함께 모여 회개와 자복으로 마지막 시대 주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라! 3000명의 열방의 성가대와 120명의 열방의 쇼파르 나팔수들이 오순절 새벽의 미명에서 감람산에서 ‘주님 곧 오시옵소서’ 찬양을 드릴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역사는 마지막 때 일어날 대 부흥의 진원지가 그때라고 외칠 것이다.

뮤지컬 영화 룻기 ‘원 뉴 맨’을 소개한다면.
구약 룻기에 대하여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룻기를 단순히 착한 이방 여느리의 효부의 이야기로 해석한다. 그래서 아버지날 가장 애용되는 말씀이다. 하지만 룻기를 그렇게 해석하면, 부분적으로만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이다. 구약과 신약은 상호 질문과 답을 제시하는 관계로 기록되어 있다. 룻기를 효부 이야기로 해석하면 구약 룻기에 대한 답을 신약에서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룻기 속에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중요한 방법이 계시되어 있다. (계속) **토마스 맵 기자**
컨퍼런스 문의: 유태일 목사(310-720-2512), 이명이 목사(714-336-8995)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 전기세 50~90% 절감 ***



2025년 대박



SCAN M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선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프로페셔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  **최고의 워런티**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www.btssolar.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시니어 건강칼럼 - 근육관절통증

통증만 덮는 스테로이드 주사 - 잠깐만 괜찮다

“스테로이드 주사의 함정”

관절이나 인대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시니어분들이 흔히 받는 치료 중 하나는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즉각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사용되지만, 사실 반복적으로 맞으면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고, 몸의 조직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장기적으로는 위험

스테로이드 주사, 단기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강한 소염 작용으로 통증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지만, 자주 맞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연골과 인대가 약해집니다.
- 감염 위험이 커집니다.
- 혈당이 올라가거나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피부 조직도 손상됩니다.

무엇보다 스테로이드는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려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근본적인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도 입증된 PRP 치료의 효과

반면, PRP(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는 환자의 혈액에서 혈소판이 풍부한 성분만을 추출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치료입니다. 이 주사는 몸의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려 손상된 조직을 스스로 회복하게 돕는 치료법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연구에서 PRP 주사의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PRP 주사 치료 가이드라인 논문(작성자: Dr. Kenneth Mautner, 미국 에모리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에서는 PRP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환자들보다 6개월 후 통증이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PRP 치료가 더 오래 효과를 보였다는 뜻입니다.

□ 무릎 관절염에 대한 PRP 치료 논문(작성자: Dr. Giuseppe Filardo, 이탈리아 리졸리 정형외과 연구소

정형외과 전문의)에서도, PRP 주사를 맞은 환자들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사람들보다 통증이 덜하고 무릎 움직임도 더 나아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시니어들도 받을 수 있는 PRP 치료

스테로이드 주사는 지금의 통증을 덜어주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PRP 치료는 몸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법으로, 자가 치유력을 활용해 조직을 되살리고 통증을 줄입니다.

이제는 잠깐 낫는 것보다, 오래도록 건강을 지키는 치료를 선택할 때입니다. PRP 치료는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통증을 단순히 견디거나 참고 넘기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세입니다.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를 돌보는 노력이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통증을 줄이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기 위해, 근본적인 회복을 위한 치료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시니어를 위해 PRP 시술을 100% 커버하는 클리닉

센터메디컬그룹은 각 지역 클리닉의 환자들에게 PRP 시술을 비롯한 모든 통증 관련 시술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이 지역 클리닉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면, PRP 통증 시술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클리닉 정보는 아래에)

센터메디컬클리닉-가든그로브점 (임유일주치의)
12372 Garden Grove Blvd., #B, Garden Grove, CA 92843 (714. 583. 8569)

센터메디컬클리닉-로렌하이트점(송홍우주치의)
19115 Colima Rd., #105, Rowland Heights, CA 91748 (626. 363. 4661)

“목회자는 주인 아닌 비서… 평신도가 목회하게 도와야”

[인터뷰] 충만한교회 임다윗 목사

최근 교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목회자 중 한 명이 바로 충만한교회 임다윗 목사다. 그는 1988년 이 교회를 개척해 현재 서울 목동과 경기도 일산, 그리고 파주에 성전을 둔 교회로 성장시켰다. 또 교회를 넘어 교계 여러 단체의 대표를 맡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대학생 선교회(UBF, CCC)에서 훈련을 받고 리더로 다년간 활동했던 임 목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 특히 평신도들을 지도자(목자)로 세워 목양하도록 하고 있다. 기독일보는 임다윗 목사를 만나 그의 목회 방향성과 비전 등에 대해 들어봤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

-목사님의 목회 방향성과 중점 사상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신도 목회입니다. ‘최전선 목회는 일반 성도가 하게 한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봉사’는 영어성경 킹제임스 버전에서 ‘더 미니스트리(the ministry)’로 되어 있습니다. 목회라는 뜻입니다. 실제 현장목회는 일반 성도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령 축구 경기에서 감독이나 코치는 실제 경기에서 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선수들을 훈련시킬 뿐입니다. 목회자가 바로 감독과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목회 현장에서 뛰지 않고 성도를 훈련시켜 그들 스스로 뛰게 하는 겁니다. 일반 성도가 현장에서 목회와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양육훈련 제사훈련 사역훈련을 시켜서 말이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목회하고 목양하는데 있어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주인이고



충만한교회 임다윗 담임목사. 임 목사는 “성도가 주인이고 그들을 훈련시켜 스스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들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자가 바로 목회자”라고 했다. ©충만한교회

성도는 비서와 같다는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성도가 주인이고 그들을 훈련시켜 스스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들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자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충만한교회의 모든 시스템은 성도가 목회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하나, 충만한교회의 방향성은 북방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땅 끝까지 증인이 돼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땅 끝이 어딜까요. 저는 그곳이 바로 북한과 중국,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봅니다.

충만한교회는 서울 목동에서 출발해 경기도 일산을 거쳐 현재 파주시 운정에 왔습니다. 이제 통일을 바라보며 개성으로 올라가고 평양과 신의주, 함흥과 원산에까지 이르러 합니다. 남북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지난 70여년 간의 기도가 쌓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통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 때 북방선교의 아시안 하이웨이를 뚫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교회의 비전입니다. 성도들

에게 계속 이 비전을 심고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 등을 맡고 계십니다. 이런 교계 활동에 대한 특별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의 후유증으로 ‘가나안 성도’(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 ‘노마드 성도’(유목민처럼 교회를 옮겨 다니는 성도)가 급증했습니다. 개인주의 신앙과 개교회주의 신앙이 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는 여전히 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씨만 살리면 한국교회는 다시 크게 성장할 것이고, 세계선교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불이 붙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자로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을 쓰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약하나마 한국교회에 다시 불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 한 명으로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사태 후유증으로 인해

한국교회 침체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 파주만 해도 많은 개척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가나안 성도, 온라인 성도, 노마드 성도가 폭증해서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가 더 심화하다보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동체성과 공교회성이 약해졌습니다. 교회연합정신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도 여전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회 내 정치적 진영 싸움도 심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에는 여전히 막강한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이 다 꺼지지 않았습니니다. 한편으로는 교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본질 회복운동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와 회개, 찬양의 운동 말입니다. 이 불씨가 확산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불이 붙을 것이고, 그것이 활활 타올라 통일 이후 북방선교에 있어 한국교회가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시국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회의 갈등 수치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념·진영·지역·계층·성별 갈등 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결국 이 모든 갈등의 본질적 문제는 영적인 것에 있다고 봅니다. 치열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교회가 치열한 영적 싸움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나가 될 수 있고, 나라도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오직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와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 갈등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회개운동을 일으켜서 성령으로 강력히 무장해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 대한민국은 치유되고 흥왕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성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돼라는 명령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온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사도의 지도를 받아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이 되었습니다. 빌립과 스테반 집사 모두 평신도였습니다. 그들이 깨어 일어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일반 성도가 깨어 일어나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이 바로 ‘만민제사장’입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되지 못하지 교회에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그럼 대한민국도 회복될 것입니다.”

임다윗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Evangel 신학대학원을 나와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D. Min.)를 받았다. (사)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경기도 의정선교회 대표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교회연론회 대표, 대한민국기독교원로의회 대표섭김이, 경찰청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 공동회장, 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회장, 충만한교회 담임목사를 맡고 있다.

김진영 기자

최초 중국어 성경, 영국서 약 1억에 낙찰

중국어로 된 최초의 완전판 성경이 경매에서 56,000파운드(약 1억 660만 원)가 넘는 가격에 팔렸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엑식스주 첼름스퍼드의 옥스팜 중고서점에서 발견된 이 성경

은 존 라사(John Lassar)와 조슈아 마샴(Joshua Marsham)이 번역해 1815년과 1822년 사이에 시리즈로 출판한 것이다. 기부 더미에서 이것을 발견한 자원봉사자들은 본햄스 경매에 내놨고, 이는 2주간 입찰 끝

에 56,000파운드(약 1억 660만 원)에 팔렸다. 첼름스퍼드 옥스팜 중고서점 관리자인 닉 리브스는 “이 성경책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우리는 경매에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을 지켜

봤다. 경매가 끝났을 때,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본햄스는 “이 중국어 성경의 출처는 ‘토마스 딕슨’이라는 인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경 안쪽에 ‘1836년 3월 28일, 딕슨이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Tho. Dickson from his loving mother, 28th March 1836)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며 “그러나 이 책이 어떻게 영국에 들어왔고 옥스팜 서점에 기부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신미셀 기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감리회 원로목사들, 교단 내 친동성애 · 좌경화 흐름 우려

교단 본부 있는 광화문 빌딩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

목사들이 쿠퍼집회에서 축복식 해 출교 불복해 세상 법정 갔다는 소식에 참담 난국에 신학교 교수들이 편향된 행보 대한민국에 부는 광풍, 좌파세력 준동

감리회 원로목사들이 교단 내 친 동성애 및 좌경화 흐름에 우려를 표하며 교단이 이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원로목사 연합회(회장 김산복 목사, 이하 연합회)는 31일 교단 본부가 있는 서울 광화문 빌딩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회는 시국선언문에서 “그동안 감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소식들을 접하며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현직에 있을 때 바로 세우지 못한 죄책감과 불충함에 대한 참회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성애자로, 성경의 모든 관점을 동성애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쿠퍼성서주석이 발간이 되었다든가, 목사들이 동성애자들의 집회인 쿠퍼집회에서 축복식을 행하여 출교가 되고 이에 불복한 자들

이 세상 법정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는 신학교의 교육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난국에 신학교 교수들의 한쪽으로 치우친 행보를 보며 그 의구심은 증폭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 침묵하며 기도만 하는 것은 주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라고 했다. 연합회는 “생명을 살려야 할 신학교의 타락은 개인을 넘어 교회와 국가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인간의 사상과 소견을 우선하는 가르침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저버리고,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고 멸시한다면 영생과 부활의 길로 인도해야 할 신학교는 사람을 죽이는 온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므로 신

학교의 교수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영혼을 살리는 산실이 되도록 돌아가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소망을 품을 수 없다. 신학교와 교회는 어느 시대에도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연합회는 “3개 신학대학교(감신·목원·협성)와 감리교회의 각 연회와 지방회 총회는 기감 제36회 행정총회에서 쿠퍼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할 것을 기억하여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이어 “쿠퍼집회에서 축복식을 행하여 연회와 총회에서 재판 중에 있는 목사들을 해당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는 교리와 장정대로 엄히 처리하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광풍은 좌파 세력들의 준동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를 단호히 물리쳐 나갈 것을 우리는 분명히 천명한다”고 했다. 이날 원로목사들의 시국선언에 함께한 감리회 서울연회 노원지방 원천교회 박은순 담임목사는 “지금 (

학교의 교수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영혼을 살리는 산실이 되도록 돌아가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소망을 품을 수 없다. 신학교와 교회는 어느 시대에도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연합회는 “3개 신학대학교(감신·목원·협성)와 감리교회의 각 연회와 지방회 총회는 기감 제36회 행정총회에서 쿠퍼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할 것을 기억하여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이어 “쿠퍼집회에서 축복식을 행하여 연회와 총회에서 재판 중에 있는 목사들을 해당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는 교리와 장정대로 엄히 처리하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광풍은 좌파 세력들의 준동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를 단호히 물리쳐 나갈 것을 우리는 분명히 천명한다”고 했다. 이날 원로목사들의 시국선언에 함께한 감리회 서울연회 노원지방 원천교회 박은순 담임목사는 “지금 (

학교의 교수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영혼을 살리는 산실이 되도록 돌아가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소망을 품을 수 없다. 신학교와 교회는 어느 시대에도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연합회는 “3개 신학대학교(감신·목원·협성)와 감리교회의 각 연회와 지방회 총회는 기감 제36회 행정총회에서 쿠퍼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할 것을 기억하여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이어 “쿠퍼집회에서 축복식을 행하여 연회와 총회에서 재판 중에 있는 목사들을 해당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는 교리와 장정대로 엄히 처리하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광풍은 좌파 세력들의 준동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를 단호히 물리쳐 나갈 것을 우리는 분명히 천명한다”고 했다. 이날 원로목사들의 시국선언에 함께한 감리회 서울연회 노원지방 원천교회 박은순 담임목사는 “지금 (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원로목사연합회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감리회 목회자들이) 쿠퍼집회에 가서 축복식을 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프레임에 씌워 감리회가 반지성적 반이성적 단체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목회자들이 쿠퍼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것의 저변에는 쿠퍼신학적 시각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해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의

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판결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김정성 감독회장을 비롯한 연회 감독들을 향해서도 “대한민국이 좌경화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이 때, 침묵하지 말고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 대로 선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원로목사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바로 광화문 빌딩의 교단 본부를 방문해 시국선언문을 전달했다. 김진영 기자

“사순절… 국가적 갈등 속 더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림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림나비)이 2025년 사순절 성명을 3월 31일 발표했다. 살림나비는 “사순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라며 “

사순절을 맞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낮고 가난한 마음을 갖는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과 지역에 따른 편가르기, 서로를 향한 적개심과 투쟁 속에 나라가 질곡의 고통과 혼란 속

에 있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소시민들이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한 채 충동적 살인과 자살이 증가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며 “사순절을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교만한 마음과 공격적 태도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동정하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오늘 대한민국이 이러한 국론분열과 정치 사회적으로 국민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속에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서로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비판하는 자세가 자리잡고 있다”며 “오늘의 나라 혼란 속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서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순절 기간 동안

안 기독교인들은 금식과 특별새벽 기도 등 영적인 절제와 청빈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더해 음식과 의복 그리고 생활방식 등에서도 비싸고 화려한 것들을 피하는 등 육적인 절제와 청빈의 삶도 실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하여 육체적 쾌락과 만족을 구하는 오락이나 유흥 향락을 피하고 문화적 금식을 함으로 영적 육적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 휴대폰 사용도 절제하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휴대폰 사용 유보, 인터넷 오락 사용 유보를 실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자”고 했다.

더불어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낮아 지심의 의미를 기억함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들을 돌아보아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며 “그리고 전 세계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하겠다”고 했다. 살림나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깊이 묵상해야 하겠다”며 “주님을 따라오려면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 오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영광을 원했고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한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를 돌보기보다는 자신의 부를 쌓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김영한 박사

SHARING BREAD FOR SOUL

사순절 금식을 나눔의 금식으로!

사순절 기간 하루 한끼 금식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소망을 나눔시다

World Share USA 홍보 대사

전용대 목사 지경 교수

목사님! 성도님! 2025년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거룩한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된 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닮은 나눔과 사랑의 실천으로 영혼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의 영혼도 살리는 축복의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사순절 나눔의 금식은 사순절(40일) 기간에 한끼씩 금식하면서, 영육에 가난한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여 절약한 선교비(3불X 40일)를 선교지에 보내는 영성 훈련과 사랑의 실천 캠페인입니다. 기도, 금식, 나눔 그리고 선교를 함께 실천하는 축복된 사순절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World Share USA 대표 강태광 목사의 임직원 일동

2025 사순절 개요 시작일: 3월 5일~종료일: 4월 19일

World Share USA는 소망학교(아이티, 도미니카), 고아원(수리남), 전쟁 희생 유가족(우크라이나) 돕기를 합니다.

어떻게 참가할까요?

개인 월드쉐어USA로 사순절 나눔의 금식에 참가 통보 (가능한 미리 공지 및 통보 해주시면 사순절 기간을 더 잘 보낼 수 있습니다.)하시고, 사순절 금식 선교비를 월드쉐어USA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회 나눔의 금식 참가의사를 월드쉐어USA에 알려 주시고, 성도들에게 참가를 권면하시고 성도들의 금식비 선교비를 월드쉐어 USA로 전달하십니다.

월드쉐어USA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의 극빈지역 아동들과 고아원 아동들의 사순절 기간에 양육 프로그램과 영혼을 위한 빵을 나누는 SBS (Sharing Bread for Soul)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25 사순절 나눔의 금식 준비위원회

민경엽 목사 부 준비위원장 박세현 목사 부 준비위원장 김영일 목사 준비위원 안신기 목사 준비위원 양경선 목사 준비위원 최국현 목사 준비위원

이인규 목사 준비위원 써니김 목사 준비위원 김은목 목사 준비위원 진건호 목사 준비위원 양국민 목사 준비위원 김정호 목사 준비위원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이슬람국가, 나이지리아서 ‘은밀한 지하드’ 중



▲울고 있는 나이지리아 여성의 모습. ©한국오픈도어

박해감시 단체 국제기독교연대(ICC)의 제프 킹(Jeff King) 회장이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살해하는 국가는 북한이 아니라 나이지리아”라고 강조했다.

제프 킹 회장은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급진적 이슬람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을 북쪽에서 농업의 중심지인 중부 지역으로 밀어냈다. 무장 세력은 마을을 습격해 전체 지역사회를 죽이고 이주시켰다. 이는 은밀한 지하드, 대규모 토지 강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킹 회장은 “이슬람 극단주의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려, 영토의 전체 구역을 통치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슬람국가(IS)가 전체 지역을 점령한 것 같다. 이 지역들이 너무 외딴 곳이라, ISIS를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며 나이지리아를 넘어 아프리카 사헬 지역 전체를 휩쓸고 있는 더 광범위한 위기를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나이지리아를 넘어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도 기독교인에 대한 끔찍한 폭력이 목격됐다. 이슬람 국가와 연계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연합민주군(ADF)은 며칠간의 납치와 테러 끝에 기독교인 70명을 참수했다.

1995년 설립된 ICC의 제프 킹 회장은 20년 넘게 종교 자유 증진과 박해받는 기독교인 지원에 주력해 왔다.

킹 회장은 “옹호, 인식 제고, 지원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가장 위험한 곳 중 일부에 가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회회를 재건하고, 모든 것을 잃은 신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무대 뒤에서 국제적 압력을 활용해 정부를 정의로 이끌기 위해 일한다”라고 했다.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반대에 직면하고 있지만, 킹 회장은 이 종교 집단을 특별히 탄압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하나의 이념, 즉 이슬람을 지적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을 공산주의 정권이 가장 많이 박해했으며, 중국

과 쿠바와 같은 나라에서 박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 급진적 이슬람이 가장 큰 위협”이라며 “사우디는 이슬람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하며 엄격한 이념을 퍼뜨리는 데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그들은 급진적인 모스크, 교육 기관, 무장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결과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야톨라(시아파 이슬람의 성직자)들은 이슬람을 전 세계에 확산하겠다고 했지만,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들은 이슬람 정권의 잔혹함을 봤고, 이제 회회가 폭발하고 있다”며 “이란은 아마도 지금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해가 심화되면 교회는 더 강해지곤 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덜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많은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박해 소식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고통의 규모가 방대하고 무력함을 느끼기 쉽다”면서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다. 먼저, 문제를 따라가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서 옹호자가 돼라. 선출된 공무원에게 전화하라. 행동을 요구하라”고 권면했다. 아울러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만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박해받는 교회는 우리에게 신앙, 회복력,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들의 고통은 낭비되지 않는다”며 “그리고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든 개인적 고난이든 시련을 통해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신다. 우리는 모든 박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는 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英 법원, 성중립 대명사 거부 교사에 벌금 약 6천만 원 강제 징수



에녹 바크

영국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선호하는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세 번째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의 일부인 4만 유로(약 6,300만 원) 강제 인출 명령을 내렸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웨스트미스에 있는 아일랜드성공회 학교인 윌슨병원학교의 교사인 에녹 바크는 현재 미납 벌금이 79,100 유로(1억 2,6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고등법원은 최근 은행에 7일 이내로 4만 유로를 바크의 계좌에서 법원 서비스 계좌로 이체하라는 강제 인출 명령을 내렸다. 바크는 2022년 8월 트랜스젠더 학생의 새 이름과 성 중립적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 후 징역 3개월을 받았다. 그가 가르칠 준비가 됐다고 계속 말하자, 학교 측은 그를 캠퍼스에서 쫓아

내기 위해 법원 명령을 구했다. 그는 학교 내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후, 2022년 9월에 마운트 조이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석방된 후 학교에 계속 나오다가 지난해 9월 이번에는 더블린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올해 6월에 석방됐지만, 법원 명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출석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바크는 8월 22일 새 학기가 시작되자, 다시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학교에 나왔다가 3번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바크는 계속해서 당국에 협조하기를 거부하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분쟁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며, 그는 곧 다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2세를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dso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금요일씀과 삶 공부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10:50
오후 7:00
오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토)

오후 2:00
오후 7:30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교육부예배
EM예배
청년부예배

오전 7:30, 9:00, 11:00
오전 11:00
오전 11:00, 9:30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등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 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e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금요일예배
새벽예배

오전 11:00
오후 7:30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토) 9-11시
매일 저녁(토)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주일 저녁(토)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경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디오 오후 5:00

GOEM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lc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중고등부 성경공부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오전 10:30
주일 오전 9:30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트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트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진건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ing), 고치고(Healing), 키르메(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일선 성경공부 10:4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한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장년예배
오후 2: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묘미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 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O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rg.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영애인예배
오전 11:30
장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국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대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상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일본어 예배
오전 1:15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9: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유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 444-0521

주일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4부 청년예배
오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출강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수단, 두 달간 기독교인 19명 체포 · 구금… 체계적 박해 우려

수단에서 최근 두 달간 최소 19명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되면서 종교 탄압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 2월 수단 남부 마다니시에서 기독교인 19명이 군부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2023년 초부터 수단 정부군(Sudan Armed Forces, 이하 SAF)과 대립해 온 ‘준군사 조직 신속지원군’(Rapid Support Forces, 이하 RSF)을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현재까지 구금된 상태다. 지난 1월 21일에는 SAF 소속 보안요원이 기독교 단체 ‘교회 간위원회’(Inter-Church Committee)가 주최한 기도회 참석을 위해 이동 중이던 기독교인 7명을 체포했다. 이 기독교인들은 모두 RSF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현지의 신바고 무가담(Shinbago Mugaddam) 변호사는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일주일간 강도 높은 심문을 받은 뒤 마다니 나일가(Nile Avenue)에 있는 합동군사수용소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당국에 ‘기독교인들을 지체 없이 석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으며, 그들을 RSF와 연결시킬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구금돼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또한 마다니에서 약 94km 떨어진 와라와(Wad Rawah) 지역에서도 12명의 기독교인들이 RSF를 지지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들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독교 인권단체들은 수단군의 이번 체포가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유엔인권위원회(UNHCR)의 보고에

무너진 SPEC 교회 건물. ©모닝스타뉴스

따르면, SAF 압델파타 알 부르한(Ab-delfattah al-Burhan) 장군과 RSF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Mohamed Hamdan Dagalo) 사령관 사이의 분쟁으로 1,29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집을 잃었고 수만 명이 사망했다.

2019년 4월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 축출 이후 수단 군부정권은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개인 소환, 심문, 감시, 수색, 구금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정보 요원들에게 민·형사적 기소 면제권을 부여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가 발표한 ‘2025 기독교 박해국 목록’(World Watch List, WWL)에서 수단은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3계단 상승한 것이다. 보고서는 “수단에서 살해 및 성폭행을 당한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했고, 교회는 폭력 또는 약탈을 당하는 등 군부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전했다.

이윤준 기자

英 초등학교, ‘다양성’ 강조하며 부활절 행사 취소 논란

영국 햄프셔에 위치한 노우드초등학교 전경. ©구글

국 햄프셔의 한 초등학교가 매년 진행해 온 부활절 행사를 ‘포용성과 다양성 존중’이라는 학교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스트레이 소재 노우드초등학교 스테파니 맨더(Stephanie Mander) 교장은 “앞으로 전통적인 부활절 예배와 모자 퍼레이드를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학부모들에게 보냈다.

맨더 교장은 공문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부 사람들, 특히 수년간 이러한 전통을 소중히 여겨 온 이들에게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정이 포용성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우리의 가치와 일치한다고 믿는다”며 “향후 몇 년 동안 모든 어린이를 포함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면서 절기를 기념하는 대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소식이 공개되자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비판이 일었다. 한 학부모는 “맨더 교장은 크리스마스 역시 취소할 계획인가?”라고, 또 다른 학부모는 “모든 종교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기념해야 한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개인

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부활절 행사를 취소하기로 한 결정은 종교 축제를 기념하는 학교 자체의 정책과 모순된다”면서 “맨더 교장이 언급한 다양성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학교 웹사이트에는 학생들이 기독교 절기인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이슬람 절기인 이드, 디왈리 등 중요한 종교 및 문화적 행사를 함께 기념한다고 적혀 있다.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스트레이 주민의 45%는 기독교인, 또 다른 45%는 무종교인이었다. 그 다음은 힌두교와 이슬람교로 각각 1%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이스트레이 거주자의 94.2%가 영국인, 웨일스인, 영국 또는 웨일스 혼혈인이라고 했고, 응답자의 4.4%만이 완전한 비영국인이라고 했다.

한편 부활절 기념 행사는 취소됐으나, 학교 측은 오는 6월 난민들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맨더 교장은 “포용성을 기념하는 방법 중 하나는 6월에 열리는 ‘난민 주간’에 참여하는 것과 공인된 난민학교가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해진 기자

美 국제종교자유위, ‘종교 박해 난민’ 정착 지원 촉구



나이지리아 난민 캠프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 목회자.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지난 3월 25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한 2025년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종교 박해를 피해 도망친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촉구하고, 나이지리아의 종교 자유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대사 임명을 권고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USCIRF는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가장 심각한 형태의 종교 박해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탈출한 난민들을 ‘미국 난민 입국 프로그램’(USRAP) 및 기타 인도적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이어 “이것은 세계적으로 4,370만 명에 달하는 난민 위기 완화를 위한 조치로, 그들 중 다수가 종교적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정부에 나이지리아를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이지리아 및 차드 호수 지역의 종교 자유 침해 및 집단 학살 위험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에 특별대사를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 정부가 국제종교자유대사, 국가 안보회의(NSC) 내 국제종교자유특별보좌관, 그리고 북한인권문제특별대사 등의 직책을 신속히 채울 것을 촉구했다. 이어 CPC로 지정된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면제로 인해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미국 정부가 기존 면제를 철회하거나 향후 CPC 재지정 시 면제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정책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USCIRF는 미국 국무부가 12개국(미얀마,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CPC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하며,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인도, 베트남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라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시리아, 터키, 우즈베키스탄을 종교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별감시국목록(SWL)’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알사바브, 보코하람, 하야트

신미셸 기자

굿네이버스, 미얀마 지진 50만 달러 규모 긴급구호



지난 3월 28일 발생한 미얀마 강진 피해 현장 모습.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규모 7.7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 50만 달러(약 7억 3천만 원) 규모의 긴급구호를 진행한다.

지난 3월 28일(이하 현지시간)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Mandalay) 지역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을 가능성을 71%로 추산한 가운데, 여진이 계속되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피해 지역 중 현재 접근이 가능한 미얀마 중부와 북부, 태국 방콕을 중심으로 총 50만 달러 규모로 긴급구호를 진행한다. 지진 발

타흐리르 알샴(HTS), 후티 반군, 이슬람 국가 사아프리카지부(ISWAP), 이슬람 국가 사헬지부(ISSP), 자마트 나스르 알 이슬람 왈무슬리민(JNIM) 등 7개 단체를 ‘특별우려단체’(EPC)로 재지정할 것을 권장했다.

보고서는 “2024년에 나이지리아에서 연방 및 주 정부가 종교적 동기를 가진 폭력 행위에 대해 방치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됐다. 특히 보코하람 및 ISWAP과 같은 극단주의 단체들이 특정 종교 해석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 풀라니 민병대도 유사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에 대한 나이지리아 보안군의 대처가 느려서 종교적 소수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2024년 베트남에서는 국가가 종교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며, 독립적인 종교단체를 운영하려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구금·체포·투옥 및 고문을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제정된 ‘종교 및 신앙법’과 2024년 3월 발효된 ‘제95/2023/ND-CP’ 법은 종교단체의 재정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광범위한 사유로 종교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샤리아 법을 강력하게 시행하며, 이슬람 외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2024년 8월 발표된 ‘도덕법’은 여성의 공공장소 출입을 제한하고, 비이슬람 종교 행사 및 상징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공격과 차별이 증가했으며,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BJP) 소속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반이슬람 및 반소수자 정서를 조장하는 혐의가 보고됐다. 이러한 혐오적 발언이 선거 이후에도 폭력 사태를 촉진했으며, 정부가 테러방지법과 외국인기부규제법을 활용해 인권단체 및 소수종교 활동가를 탄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USCIRF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종교 자유 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박해받는 난민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신미셸 기자

생 직후, 미얀마에 긴급구호 대응 인력을 급파했으며, 현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초기 대응에 나섰다. 우선 지진 피해가 큰 지역에서 식량 및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 키트를 배분하고, 아동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긴급구호를 펼칠 계획이다.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은 “재난구호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아동을 비롯해 지진으로 삶이 무너진 미얀마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굿네이버스는 글로벌 파트너십과 협력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을 중심으로 긴급구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굿네이버스는 미얀마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후원자는 굿네이버스 공식 홈페이지와 카카오 같이가치, 네이버 해피빈 플랫폼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기업 및 물품 후원은 대표전화(1544-794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윤준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8: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예배(DM)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초등부(3-5) 오전 10: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가리솔)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들레)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야생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오영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침례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3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목요예배 오후 7: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오전 9:00,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8
E-Mail: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रेस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비초크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edia@gmail.com
www.juni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찜닭, 오뎀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중요한 면역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평신도 신학 강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4/5 토 오전 10시~오후 3시 평신도 대상
4/6 주일 오후 4시~오후 6시 목회자 대상

니즘이란 무엇인가
(2022)』, 『질문 빈
곤 사회(2021)』 등
이 있다.

한편, 강남순 교수는
LA연합감리교회(이창민 목사)
에서 4월 6일(주일) 1부와 2부 설
교를 이끌 예정이다.

4월 5일 토요일 공개강좌 또는
주일 강좌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QR 코드를 사용하거나 연합감리
교뉴스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행사가 진행되는 클레어몬트 신
학대학원의 주소는 10497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24이며,
자세한 문의는 이경식 부총장에게
이메일(slee@cst.edu)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행사는 드림교회(최요
셉 목사), 로스펠리츠연합감리교
회(이석부 목사), 서부지역연회
(Grant Hagiya 감독) 등 여러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후원한다.

출처: 연합감리교뉴스(umnews.org)

2025 한인연합감리교회 강좌
마음과 이성, 신앙과 지식의 성장을 위하여
"Growing in Hearts and Minds, Faith and Knowledge"



강사: 강남순 교수

- 소속: Texas Christian University, Brite Divinity School 교수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객원교수
- 학력: Drew University, Ph.D.
- 수상: 2017년 경향신문 선정 올해의 저자
- 경력: Texas Christian University, Brite Divinity School 정교수
영국 Cambridge University, 신학부 연구교수
세계신학교육기관 협의회 (WOCATI) 회장
한국일보, 시사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 저서: 철학자 예수 (2024), 데리다와의 대화 (2022),
코즈모폴리타니즘이란 무엇인가 (2022), 질문 빈곤 사회 (2021)

시간/일정	4월 5일 (토) 공개 강좌	시간/일정	4월 6일 (일) 목회자 강좌
오전 10:00 - 12:00	공개 강좌 1: 예수님을 이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후 1:00 - 1:30	이제는 어떤 리더인가? 예수 리더십의 7가지 원리와 철학
오후 12:00 - 1:30	점심식사	오후 1:30 - 1:45	점심식사
오후 1:45 - 3:00	공개 강좌 2: 21세기, 예수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주최와 장소

소: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10497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24)

후원

•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로스펠리츠연합감리교회 (이석부 목사),
서부지역연회 (Grant Hagiya 감독), 본디크로연감리교회 (전재환 목사),
메수렐교회 (김정삼 목사), 북스나드연감리교회 (남재현 목사),
필사원교회 (이영호 목사), 카미온오만연합감리교회 (이광영 목사),
크리스천리더십 (조영환 목사), Cal-Pac 연회 한인 교파 (김영호 목사),
LA북쪽연합감리교회 (김승용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
SeaH Steel America, Inc. (이영준 회장)

문의

의: 이경식 부총장 (626.616.2478, slee@cst.edu)

등록

목: 무료 하단 QR 참조



올리브 트리 아카데미 썸머 스쿨 학생 모집

LA한인타운에 있는, 올리브 트리 크리스천 아
카데미(Olive Tree Christian Academy: OTCA)가
5/16일까지 썸머 스쿨 학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1-12 학년이며, 썸머 스쿨은 6/16-
7/25(월-금) 6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
행된다. 등록비는 \$1,080(61주) 및 \$50(진단검사 &
인터뷰)이다. 교재비 및 특별활동비는 별도이다.

OTCA는, UCLA, USC에서 캠퍼스 선교를 하던
김수미 목사가, 그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가정을 이
루고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그들을 성경적 세계관
으로 교육하기 위해 시작한 크리스천 학교이다.

OTCA의 수업은 A.C.E. School of Tomorrow 커
리큘럼을 사용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으로 진
행된다. 학교 일과는 예배와 말씀, 기도로 시작되
며, 이 외에도 부모님들과 정기적인 소통과 만남,
월례 기도회를 통해 가정과 학교, 교회가 학생들의
교육을 함께하고 있다.

학교 주소: 3470 Wilshire Blvd STE 300, Los Ange-
les, CA 90010

학교 웹사이트: www.launitedchurch.com/ko/otca
문의: 213 999 4209, uccshine@gmail.com.

OLIVE TREE
SUMMER SCHOOL



1. 대상: 1-12학년
2. 기간: 6/16 - 7/25 (월-금, 6주)
3. 시간: 9:00am - 3:00pm
4. 등록비 \$1,080(6주) + \$50(진단검사 & 인터뷰)
5. 등록기간: 5/16까지 (선착순 모집)

점심식사 제공 안됩니다 (도시락 지참 요망)

교재비, 특별활동비 (Field Trip ...)는 별도 청구됩니다.

진단검사 및 인터뷰 날짜는 별도로 공지해드립니다.

Information

- 주소: 3470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 연락처: 626-376-2955 / 213-944-2245
- 웹사이트: launitedchurch.com
- 이메일: olivefreecristianacademy@gmail.com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신임회장에 오성에 지휘자 선출

LA와 뉴욕에서
‘창작가곡제’ 개최 예정

지난 3월 8일 열린 총회에서 ‘남
가주 한인 음악가 협회’ 신임회장
에 오성에 권사가 추대되었다.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는 남가
주 각 교회의 합창단 지휘자, 독창
자, 반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첫 행사로 오는 5월 뉴욕
과 LA에서 시인들의 시 작품에 작
곡가들이 곡을 붙여 창작된 ‘창작
가곡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
렸다.

오성에 회장은 얼마인 베델교회
에서 팬데믹 전까지 17년 동안 성
가대 지휘자로 섬겼고 현재 미주

여성코랄 지휘자로 34년째 섬기
고 있다.

한편 신임 임원들은 다음과 같
다.

회장:오성에, 부회장:한홍윤, 이
사장:신영정, 성악분과장 오위영,

작곡분과장 이호준, 기악분과장
안정희, 합창분과장 장상근, 실용
음악분과장 이경남, 미디어홍보분
과장 이동용, 연주분과장 제갈소
망, 대외협력분과장 여선주.

김민선 기자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 임원들. 오른쪽 네번째가 오성에 신임회장

진유철 칼럼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되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는 그의 자녀들에게 돈을 관리하는 비법으로 수입의 10%는 하나님께 드리고, 10%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10%는 착한 일에 사용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교훈대로 착한 일을 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씨를 뿌림으로 물질 축복의 선순

환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6:10)고 말씀합니다.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승리의 장면들, 블레셋의 거인장수 골리앗을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이긴 장면, 미디안의 13만5천 명의 대군을 기드온의 삼백 용사가 이긴 장면, 가나안의 철벽 성 여리고를 광야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장면 등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인간적인

계산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즉 각 순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임감(responsibility)은 응답(response)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2아들 중 4째인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전쟁의 힘든 상황에서 항상 선봉에 서는 응답이 있으니가 나중에 예수님 족보의 장남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응답하는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착한 일이든 믿음의 승리이든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과 동일한 상황이 또 다시 만들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주의 뜻

안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평신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였는데, 큰 은혜를 받아서 헌신을 결심하고 1년 안에 가지 않으면 대부분 못 가게 되더라고 말했습니다. 첫 마음은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지만 시간이 흐르며 내 생각이 스며들게 되면 시험이 생기게 되고 결국 어려워지거나 기회를 놓친다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두렵고, 생각을 많이 할수록 못 갈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헤어진 조카 롯이 북방 4개국 연합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도우심

의 승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 불리를 먼저 계산했거나, 사사로운 감정개입으로 행동하기를 주저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체험되는 은혜와 기적이 없다면 그것은 내 생각, 내 입장, 나의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있는 까닭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의 회년총회가 이번 주간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오는 총회원들이 모여서 이사장 이영훈목사님의 성화와 함께 저희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살람!

센트럴신학대학원 신학 단상

급변하는 사회에서 신앙의 회복탄력성에 주목하자



김 효 준 교수

센트럴신학대학원 한국부 교육분과장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급변하는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삶에 많은 편리함과 유익함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 계급화, 국가 및 개인 간의 빈부 격차, 비인간화와 같은 사회적·윤리적·신학적 문제를 새롭게 제기했다.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1월 8일에 발표한 ‘2025 미래 직업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41%가 향후 5년 내에 AI 기반 업무 자동화로 인해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AI 및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적 전문직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단순 행정, 계산, 비서, 급여 담당자, 그래픽 디자이너 등의 직무에서는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30년까지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1억 7,0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5년 내에 7,8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글로벌 노동력을 100으로 가정할 때,

2030년까지 59%가 재교육 또는 역량 강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중 11%는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러한 직업의 변화는 가정, 교회, 사회와 국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최첨단 기술이 다가옴에 따라 수요에 맞게 우리의 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가정에서 두드러진다. 조셀 코우츠는 2025년 미국과 지구촌의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결혼형태의 변화 시나리오를 5가지, 즉 동거/사실혼, 실험 결혼, 브로커를 통한 결혼, 일생의 파트너, 경제적 결합으로 말한다.

기존의 결혼 형태와는 다른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지진과도 같은 충격을 준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사회 가치관, 포스트모던 사회 가치관, 신앙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과 충돌을 경험하며, 연속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런 충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회의 발전에 맞춰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경쟁사회로 떠밀려가게 된다. 경쟁사회에서 타인을 앞서지 못하고 뒤처질 경우, 우리는 실패자라는 오명을 갖게 되고,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길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즉, 2025 미래 직업 보고서에서 언급된 재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11%의 낙오자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관계는 양육과 지속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 양육과 돌봄을 잘 받으면 관계는 아름다움과 선을 만들어 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사랑이 병들고 쇠퇴하게 된다. 이로 인해 마음속에 커다란 상처가 남으며, 우리는 그 상처를 매우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일시적인 만족만을 얻을 뿐이다. 이러한 불만족이 계속되면 공격성과 폭력성을 띠게 되며,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유럽위원회가 선정한 5차 산업혁명의 3가지 핵심 가치인 ‘인간 중심’, ‘지속 가능성’, ‘회복탄력성’이다. 나는 회복탄력성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다. 회복탄력성이란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크고 작은 역경과 시련, 그리고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 바로 회복탄력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하지만 창조된 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수록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뒤따라가면서, 불안한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을 하나

님의 사랑 안에서 채울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의 신앙의 회복탄력성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사회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가정은 언제나 환영을 받는 곳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정은 사회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다. 가정은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가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와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명예퇴직을 당한 사람들, 취업에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 신앙에 의심과 회의를 가진 사람들, 사회의 변화에 뒤처진 소외된 사람들이 환대받는 곳이 가정이어야 한다.

예전에는 모교회(고향교회)란 말을 많이 사용했다. 모교회란 취업과 학업, 결혼과 이사로 인해 고향을 떠났지만, 지금 출석하는 교회도 있지만, 모(고향)교회를 그리워해서 연락을 주고 받고, 정을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후원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게 되는 고향교회를 의미한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신앙의 회복탄력성을 회복하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사회 역시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뒤처 소외된 자들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가 신앙의 회복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 사회가 기독교 교육의 베이스캠프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2025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달보트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상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달보트" 검색
유튜브: "달보트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연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비터리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학(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3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urahelo@gmail.com
전화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ea@itsla.edu

MOTHER'S DAY PREMIUM TROT DINNER SHOW

프리미엄 트롯 디너쇼

마더스데이를 맞아 미스 & 미스터트롯 스타들과
함께하는 감동의 디너쇼를 부모님께 선물하세요~!



강예슬 미스트롯 1



나태주 미스터트롯1



김의영 미스트롯 2

2025년 5월 11일 오후 6시 (입장: 오후 4시)

Taglyan Complex (엘에이 최고의 이벤트 홀)



트로트 디너 콘서트 티켓 선물 이벤트



[이벤트 안내]

“우리 부모님을 꼭 이 디너쇼에 모시고 싶은 이유” 사연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4분께 디너쇼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 접수 마감: 4월 1일
- 당첨자 발표: 4월 4일(기독교일보)
- 사연보내실곳 : kticketbox@trinity-ms.com

지금 사연을 보내시고,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하세요!

문의 | kticketbox@trinity-ms.com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독일의 모라비안 공동체를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14세기 종교 개혁자 얀 후스(Jan Hus, 1372?-1415)의 후예들로 현재 체코의 보헤미아, 모라비안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18세기 합스부르크의 카를 6세(Karl VI, 1685-1740)가 내린 개신교 말살 정책 칙령에 의해 개신교가 흑심한 박해를 받아,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갈 곳 없어 방황하다 독일의 진젠도르프(Nicholas Luding von Zinzendorf, 1700-1760) 영지인 독일작센의 베르텔스도르프(Berthelsdorf)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진젠도르프는 이들을 자기 영토 안에 머물게 하였고 이들을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원래 루터란 이었던 진젠도르프는 나중에 결국 모라비안 비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독일 작센 지역에 형성된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어두워지는 유럽 교회에 바른 복음의 깃발을 세우며 새로운 생명과 빛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특징지을 수 있는 영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대서양을 횡단하던 가운데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와 동생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8) 형제의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36년 1월,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을 품고 복음의 순례를 시작하려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존, 찰스 웨슬리 형제도 아틀란타 지역에 선교를 위해 같은 배를 타고 가던 중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우 속에서 모라비안 들을 관찰합니다. 웨슬리 두 형제는 그 환경속에서 무섭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 한편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에 가까이 가 보니 그 환경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생

명의 위협 속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을 했던 그 원동력은 “십자가. 복음” 그것 이외에 다른 어느 것으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680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이사가 53장 5-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길 잃은 양처럼 헤매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형벌을 통한 구원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가사로 만들어 한국의 장민호 작곡가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수난절 찬양을 작곡했습니다. 같은 멜로디에 6절 말씀과 5절 말씀을 가지고 각각 두절의 음악을 전개해 갔습니다. 이 작품의 특이함은 멜로디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하지 않은 도약(6도, 7도) 들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작곡가는 예언의 신비를 보여 주는 듯합니다. 그 불안한 현상을 표현하는 가운데 안전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주 멜로디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자가 복음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부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며 예언했던 핵심이었고, 모라비안들이 품고 있던 영성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라비안들의 뜨거운 영감의 찬양이 회심의 결정적 동기가 되었던 존, 찰스 웨슬리 형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영적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사랑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모라비안 공동체처럼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의 명확성과 그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온 힘을 다해 뜨거운 영감의 찬양으로 표현하고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이주형의 시간의 지문

빛이 있으라!의 문장에 변증 가능한 양자물리학적 선언



이주형 대표
CM 홀딩스

인류는 오랫동안 우주의 기원과 신의 존재에 대한 논쟁을 지속해왔다. 과학과 신학이 대립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최근 양자물리학의 발전은 성경에서 언급된 개념들과 흥미로운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된 “빛이 있으라”라는 선언과 빅뱅 이론은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점점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입자와 파동의 관계, 힉스 입자의 역할, 그리고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의 개입 가능성을 양자물리학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물리학과 신학의 연결고리

고전 물리학에서는 물질을 입자로 설명했지만, 현대 물리학은 입자가 파동의 성질을 동시

에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빛의 본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빛은 파동과 입자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며, 이는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인 ‘이중성(Duality)’을 나타낸다.

창세기의 ‘빛이 있으라’라는 선언을 물리학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는 우주의 초기 상태에서 에너지가 파동 형태로 존재하다가 물질(입자)로 전환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힉스 입자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힉스 장(Higgs Field)이 없었다면 물질은 질량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빛(에너지)이 물질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힉스 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우주의 형성과정과 맞닿아 있다.

2. 힉스 입자와 무게의 선언

현대 물리학에서 신의 입자(God Particle)로 불리는 힉스 입자는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하지만, 힉스 입자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 상태인 파동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에너지는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있지 않더라도 무한대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빛이 있으라”라는 선언이 가진 의미를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 보면, 이는 단순한 빛의 생성이 아니라, 에너지가 물질

로 변환되는 과정, 즉 입자화되는 사건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신학적으로 이는 신의 개입을 통해 무형의 에너지가 유형의 세계로 전환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 빅뱅과 성경적 선언의 유사성

빅뱅 이론은 우주가 극도로 작은 하나의 점
에서 출발하여 폭발적으로 팽창했다는 개념이
다. 하지만, 물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설명하
는 것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빅뱅 직후의
초기 상태에서는 극도로 높은 에너지 밀도가
존재했으며, 이는 입자화되기 전 파동 상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성경의 기록과 비교하면, “빛이 있으라”라는 문장은 단순한 빛의 창조라기보다,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던 것이 물질로 변환되는 과정, 즉 물리적 현실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신의 개입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물질이 존재하기 이전의 파동 상태에서 신의 의지가 입자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4. 물리학적 변증: 파동과 입자의 변환

양자역학의 중요한 법칙 중 하나는 슈뢰딩거 방정식으로 대표되는 파동 방정식이다. 이 방정식은 입자가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음을 수학적으로 설명한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파

동 방정식과 뉴턴 역학에서 사용하는 입자 방정식이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입자와 파동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에너지가 특정한 조건에서 입자로 변환될 수 있으며, 이는 우주의 기원과 맞닿아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있으라”라는 선언은 과학적으로 해석했을 때,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되는 양자역학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의 기록이 단순한 신화적 서술이 아니라, 물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선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론: 과학과 신학의 조화

과학과 신학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빅뱅 이론과 힉스 입자의 역할, 그리고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은 창세기의 ‘빛이 있으라’라는 선언을 물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신의 개입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양자물리학이 제공하는 입자와 파동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성경의 기록이 물리학적 원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신학적 믿음과 과학적 탐구가 대화를 이루며 우주의 기원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LAVU[♥]

Payment Processing

Fast & Secure Payments

Users Love Us

Easiest To Use
WINTER 2025

Highest User Adoption
WINTER 2025

High Performer
WINTER 2025

아직도 카드 수수료 내고 계신가요?

- ✔ 카드 수수료 99% 제거 옵션
- ✔ DoorDash & UberEats 수수료 제거 옵션
- ✔ 모든 배달앱 한 모니터로 관리
- ✔ 소비자가 뽑은 베스트 레스토랑 POS 시스템

고든 램지가 추천한
바로 그 POS

213-887-0046
한국어 상담 가능

레스토랑 전문이지만 “헤어샵 및 모든 industry 카드 수수료 제거 적용 가능? (월 20불)”

213-887-0046로 “DEMO”라는 문자 주시면 줌 미팅 통해 상세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ACTION CAMP에 오셔서 힐링하세요!

가족, 친구, 성도분들과 멋진 여행을 통해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Action Camp장은...



Music Festival



Camping



PCT Hiker



Church Retreat



Youth Group
Retreat



Cabin Town



Movie Night

미국내 가장 좋은 시설여건, 서비스

- 1 교회 수련회, 단체 할인 혜택
- 2 단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연장과 야외 영화도 볼 수 있는 스크린 설치
- 3 사워장, 공연장, 카페, 수영장, 배구장, 농구장, 놀이터
- 4 야외 파티와 행사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위락시설
- 5 디럭스 캐빈(Deluxe Cabin), 오토 캠핑(RV), 인디안텐트(TeePee), 텐트(Tent)장 주변에 전기, 수도, 식탁, 하수도 시설
- 6 회원의 경우 캠프사이트나 캐빈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



www.actioncamp.cc / larvresor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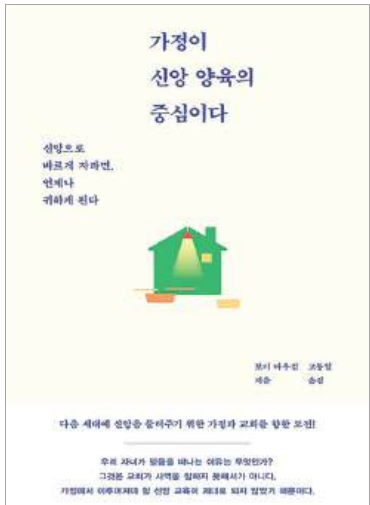
전화예약 or 온라인예약
T. 661-268-1214

7601 Soledad Canyon Rd, Action CA 93510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가정, 다시 신앙 양육 중심지로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면, 자녀들은 귀하게 자란다



가정이 신앙 양육의 중심이다

보디 바우컴 | 고동일 역 | 디모데 | 395쪽 | 22,000원

이 책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수많은 젊은 세대가 왜 나타나게 됐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가정 중심의 성경적 제자도로 돌아가라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받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교육할 일차적 책임이 가정에 있다는 것이다

믿지 않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나 그런 신앙 훈련을 받지 못했던 저자는 마찬가지로 깨진 가정에서 자란 아내와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녀 9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낸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소중한 자녀를 잃기 전에 가정에서 신앙의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도전한다

2012년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주최한 셰퍼드 컨퍼런스에서 보디 바우컴이 설교하는 것을 처음 봤다. 그는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남편과 아내의 견고한 연합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과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뒤섞이면서 모든 청중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자신이 10대 불교 신자 미혼모 아래 자랐고 아내와 자신을 둘러싼 25쌍의 가정 중 3쌍을 제외한 모든 가정이 이혼으로 파괴된 배경에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핑계를 댈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벽한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신실하신 신랑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는 잠비아 루사카에 있는 아프리카 크리스천대학교 신학부 학장으로 섬기고 있고, 2015년까지는 텍사스 스프링에 있는 그레이스패밀리침례교회 목사로 섬기기도 한 바우컴은 성경적 결혼과 가정 사역에 유독 관심을 두고 그 비전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목사이자 작가, 교육자이다.

2007년 ‘Family Driven Faith’이란 제목으로 출간된 책은 올해 (2024) <가정이 신앙 양육의 중심이다>라는 새 이름으로 디모데 출판사를 통해 국내에 소개됐다. 번역서 부제는 ‘신앙으로 바르게 자라면, 언제나 귀하게 된다’인데, 원서의 부제가 책의 핵심에 더 가까운 것 같다: ‘Doing What It Takes to Raise Sons and Daughters Who Walk with God’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아들과 딸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이 책은 가정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핵심 사역자가 돼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그것이 옅션이 아니라 필수임을 반복하며 강조한다. 매우 급진적 주장까지 나아간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왜냐하면 저자는 기존 연령별 성경학교나 소그룹을 파격적으로 없애고 가정 통합 교회를 세울 것을 권면하기 때

문이다. 공교육을 무시하지 않지만, 홈스쿨 장점을 피력하기 원하는 바우컴의 의도를 예민하게 파악한 독자는 집에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강력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홈스쿨과 가족 통합 교회에 관한 주장은 책 말미에 나온다. 그전까지는 계속 가정이 자녀의 신앙을 양육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바우컴은 오늘날 각 가정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현실적 묘사와 함께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 자녀가 마땅히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함을 강조한다.

가정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고,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저자는 계속 설명한다.

저자는 말로만 가정에서 신앙을 길러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한 달에 절반 가까이 외부 행사로 집을 비우고 교회와 각종 기독교 단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며, 정말 거절하기 힘든 큰 규모와 영광스러운 설교 요청을 받았지만, 가정을 위해 더 작은 직책으로 옮기기도 하고 요청을 거절하거나 직책을 내려놓기도 했다.

책을 읽으면서 목사이자 남편으로서 어떻게 가정을 신앙 양육의 본부로 삼을 수 있을지,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지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가정이 신앙 양육의 기능을 감당하기에 여러 이유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가장은 거의 직장애 매여 있고, 엄마도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자녀들이 어렸을 땐 부모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부모가 시간을 많이 못 내고, 자녀가 자라면서는 부모가 시간이 나도 자녀가 시간이 안 돼서 시간을 많이 못 누린다. 절



가정 예배 모습. ©freepik

대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기가 힘들다.

미국이나 영국에 비하면 아직 덜하지만, 세속 교육은 기독교의 세계관에서 점점 멀어지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바우컴이 가진 배경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 않은가? 우리도 핑계할 수는 없다.

바우컴은 자녀의 신앙을 교회에 맡기지 말 것을 요청했다. 교회는 돕는 기관이고 가정이 주요 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한다. 어쩌면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질 것이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다고 결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뭔가 급진적인 변화에 앞서, 기도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우컴의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면, 몇 가지 완전히 동의하기 힘든 제안이 있을지 몰라도, 당신은 급진적인 복음의 능력을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수혜를 자녀가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레위기 10:3

"This is what the Lord spoke
of when he said:
" ' Among those who approach me
I will be proved holy;
in the sight of all the people
I will be honored. ' "
LEVITICUS 10:3

음식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담임목사 청빙

벧엘교회(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는 메릴랜드 엘리콧 시티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9년 설립되어 46주년이 된 독립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아래와 같이 7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격

- 복음주의적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장로교 목사
-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이상 학위를 소지하신 분
- 3년 이상의 이민목회 경력을 포함하여 총 목회경력이 5년이상 되신 분 (미국 정규 신학교에서 가르친 기간을 이민 목회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영주권/시민권 소지자
- 2중 언어 (한국어/영어) 사용에 능통하신 분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이력서 (한/영 각 1부)
자기 소개서 (신앙관, 목회 철학, 가족소개 포함. 한/영 각 1부)
교회 현장 설교 한국어 2편, 영어 1편 (website link 제출)
목사안수 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목회자 추천서 2통 (추천인이 직접 제출: spsc@bethelchurch.org)

■ 서류 제출처 및 기간

- 제출 마감 : 2025년 4월 30일까지
- 모든 지원 서류는 이메일에 첨부해서 제출 Email : spsc@bethelchurch.org
- 문의 : 청빙위원장 차승훈 장로 (spsc@bethelchurch.org)

벧엘교회
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

박우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계시록〉 (1)

반기독교적인데 반감만 내세울 수 없는 영화 〈계시록〉

개신교 비판 능력 정점 올랐지만 반감만 느끼기 어려운 쟁점 존재 잘못된 계시 이해, 목회자 외도, 교회 가입 자격, 정치·직위 경쟁, 헌신과 야심 혼재, 비리 무마 등 오늘날 교회 모든 문제들 담아내

연상호 감독의 반기독교적인, 하지만 예리한 교회 비판 영화

3월 21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연상호 감독의 〈계시록〉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삼는 영화로, 심각하게 뒤틀린 삶을 사는 세 사람의 서사를 작은 미자립 개척교회를 배경 삼아 하나로 엮어내고 있다. 서사를 이끌어 가는 세 사람의 주인공은 각각 젊은 목회자, 강력 성범죄자, 그리고 강력계 형사라는 삶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작품 분위기는 시종일관 불안하고 암울하다. 그도 그럴 것이 극을 이끌어가는 두 사람, 개척교회 목회자 성민찬(류준열 분)과 성범죄자 권양래(신민재 분)의 삶이 험악하게 망가져 가는 모습이 서사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영화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강력계 형사 이연희(신현빈 분)가 권양래가 납치, 감금한 여학생을 구출하며 나뉘는 해피엔딩을 맞는 장면만이 잠시 밝고 감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뿐, 〈계시록〉 전체는 러닝타임 내내 시청자를 무겁게 짓누르는 갑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야말로 연상호 감독다운 연출이 아닐 수 없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온갖 부조리를 압축해 폭로하는 서사와 연출방식은 연상호 감독의 전매특허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 〈사이비〉(2013)와 드라마 〈지옥〉(2021·2024)에서 보여준 한국 개신교 비판 혹은 개신교계 이단 비판 실력은 국내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 가운데서 비견할 이가 없을 정도다.

이번에 공개된 〈계시록〉을 보면, 연상호 감독의 한국 개신교 비판 능력이 그 정점에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 이 작품을 보고 유쾌함을 느낄 이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상호 감독의 교회와 교역자에 대한 비판의식 가운데는 우리가 단지 반감만 느끼고 넘어갈 수 없는 고민스러운 쟁점들이 다수 존재한다.

계시에 대한 잘못된 이해, 교회 가입 자격 문제, 교역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외도, 교회 내 정치와 직위 경쟁, 교회 세습, 헌신의 소명과 개인적 야심의 혼재, 교회 내부비리 무마 방식,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에 대한 오해 등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거의 모든 문제들이 〈계시록〉 서사에 하나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 이 작품을 단순히 ‘반기독교적’이라고만 매도하기 어려

운 이유다. 연상호 감독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여기서 특별히 논하고 싶은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참된 계시란 무엇인가? 둘째, 교회는 죄인(실제 범죄자)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이번 편에서는 첫째 쟁점인 참된 계시를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 잠시 설명한 다음, 영화 속에 묘사된 계시에 대한 잘못된 이해 행태에 대해 논평하고자 한다.

복음주의적 계시분별 기준을 내댜진 한국교회의 갑갑한 현실

참된 계시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고 중세부터 현대까지 무수한 신학자들이 참된 계시가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은 끝나지 않는다. 어느 시대든지 계시에 대한 오해가 결코 종식된 적이 없는 까닭이다. 역사상 단 한 차례 예외도 없이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정통 교의를 비트는 해석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곤 했다.

현대 서구철학은 이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말한다. 현상과 해석에 대한 현대적 견해들, 이른바 실존철학과 포스트구조주의에서 인간 이해의 핵심 원리는 삶의 개별성이다. 인간 실존을 구성하는 시간과 공간은 내용상 서로 다 다른 속성을 갖기에, 한 인간이 타인 혹은 세계와 맺는 관계성 역시 다른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텍스트 또한 각자의 입장에서 다 다른 방식의 의미화를 거친다는 것이 현대의 철학적 현상학과 해석학의 기본 골자다.

이러한 견지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생겨나는 온갖 잘못된 교의 해석, 교회 전통,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마저 삶의 개별성의 지극히 당연한 산물로 여겨진다. 결국 법적·윤리적 물의를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모든 해석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진리성(truthfulness)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양성 존중의 원리가 일반화된 이 시대의 기본 정서다. 반면 복음주의 개신교 신학자들은 해석의 개별성에 일정한 선을 그으려 한다. 성서 해석의 개별성을 전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서의 가르침을 깨우치는 데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몇 가지 공통 근본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를 벗어나는 절대적 개별성은 결국 계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미국 피닉스 신학교 저명한 복음주의 조직신학 및 성서학 교수인 웨인 그루뎀(Wayne Grudem)은 성서 계시의 올바른 이해에 대한 정통 교의로부터 다음 세 가지 원리를 도출해 제시한다.

첫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배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완성됐다. 그러므로 성서 계시에 준하는 새로운 계시 같은 것은 더 이상



▲영화 〈계시록〉은 한 개척교회 목회자의 폭주를 통해 한국교회의 잘못된 계시 이해, 그리고 교회 내부의 각종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존재할 수 없다.

둘째, 참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인류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시적 맥락 안에서만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자연을 통해 주어지는 자연계시도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참된 계시 이해에 이를 수 없다. 자연계시는 오로지 하나님의 존재와 부분적 섭리만 나타내며, 그조차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특별계시 안에서만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원리는 복음주의 개신교인 입장에서 특히 새로울 것 없는 성서 해석의 핵심 기준이다. 그런데 막상 목회 현장에서 적지 않은 수의 교역자들과 신자들이 이 기준을 쉽게 내댜진 채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계시’를 추종하곤 한다. 영화 〈계시록〉은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이 흔히 않게 범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예리하게 짚어내 비판한다. 작중 성민찬 목사는 우연치 않게 성범죄자 권양래와 계속 엮이게 된다. 성민찬은 처음에 이 범죄자가 자기 아들을 납치한 것으로 오판하고 권양래를 공격했다가, 나중에 그가 자기 교회에 출석하던 여학생을 노려 납치한 사실을 알아내고 권양래를 죽이려 한다. 또 성민찬은 예상치 못하게 자신이 근처에 새로 지어지는 중대형 예배당의 담임목회자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범죄자와 엮이며 자연물로부터 특이한 징후를 포착하고, 그 와중에 자신의 사역에 대한 야심이 이뤄지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성민찬은 성범죄자 권양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자 계시라고 확신하게 된다.

여기서 성민찬이 계시라고 생각한 것은 신학자 그루뎀이 정리한 복음주의 신학의 세 가지 계시 분별 기준에 분명하게 어긋난다.

첫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준하는 계시는 오늘날 나올 수 없음에도, 성민찬과 주변 교역자들은 함부로 ‘계시’를 거론하고 그 내용을 자의적으로 이해한다. 둘째, 인류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참된 계시의 조건임에도, 성민찬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성범죄자를 악의적으로 살해하려 한다.

영화 〈계시록〉이 약간 과장된 형태로 계시를 자의적으로 분별하고 규정하는 한국 개신교 교역자들의 그릇된 행태를 풍자하고 있지만, 사실 연상호 감독의 비판의식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계시록〉은 계시를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그 내용을 경솔히 해석하는 교역자와 신자들이 드물지 않게 목격되는 한국교회의 씩씩한 현실을 짚어내 공격하고 있다. 교역자들과 신자들이 자신의 과오나 비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계시를 들먹이는 행태가 종식되지 않는 한, 이런 아전인수적 계시이해를 날카롭게 풍자하고 조롱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어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근래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한국교회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작품들이 자주 제작되곤 했지만, 이번 〈계시록〉만큼 날카롭게 한국교회의 약점을 공략하는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이 작품의 주인공 성민찬과 그 주변 개신교인들 모두 작중 이단·사이비 종파가 아니라, 한국의 복음주의 정통교단 소속이라는 설정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계시,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 등의 정확하고 성경적인 분별 기준을 세우고 선을 넘는 행태를 규제하려는 교회의 자정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이견을 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기독교적인데 반감만 내세울 수 없는 영화 〈계시록〉

TV 기독일보 신앙간증

늘 새롭게

당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미주 기독일보 유튜브 신앙 간증 프로그램 “늘 새롭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세요.
'늘 새롭게'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신앙간증하실 분이나
주위에 추천하실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신청 및 문의 : 기독일보 213-739-0403 / chdailya@gmail.com

* 미주기독일보 유튜브에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CDTV 미주 기독일보'를 검색하세요

YouTube

요즘 젊은이들과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국

[기고] 국제 관계에서 보는 중국의 한국 침투 원인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중국의 침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계속 침투해 한국을 복속시키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것을 성공적으로 막아내지 못하면 그 시도는 결국 성공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 퍼져가고 있다. 심하면 중국이 홍콩과 같은 나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중국의 침탈 가능성 등에 대해 비웃거나 비판하는 의견들도 있다. 전 세계가 서로 자기 나라 국익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면 모두가 불행해지므로, 서로를 향해 개방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행복한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특히 중국은 우리 이웃이자 가장 큰 무역 대상국이라는 점 등에서 중국 침투설을 음모론으로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후자의 관점은 국제관계학에서 이상주의 혹은 자유주의 관점에 해당되는 생각이다. 이 관점은 국제제도 형성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고 집단 안보(Collective Security)를 통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 견해는 자유 혹은 인권을 최대 가치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전자의 관점은 국제관계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현

실주의 관점에 해당한다. 현실주의 시각에서는 국제사회가 무정부 상태임을 전제로, 개별 단위인 국가들은 권력(Power)을 위해 투쟁을 한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평화란 실현 불가능한 것'이므로, 빈 체제와 같은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을 지닌다.

자유주의 혹은 이상주의는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듯 인류가 원하는 국제관계의 이상을 그리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국제사회의 관계는 대부분 현실주의적 관점이 더욱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흡스는 "인간의 자연 상태는 전쟁터와 같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말한 바 있고,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투키디데스는 "만약 우리가 당신들을 우호적으로 대하면, 우리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그것을 우리가 유약하다는 표시라고 간주할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당신들을 정복함으로써 우리 제국의 크기뿐 아니라 그 안보도 증대시킬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상적 국제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우선 냉엄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인식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대하는 생각에서도 "설마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탈하려고 하겠어?" 또는 "중국을 적대적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우호적 관계를 만들려는 눈으로 봐야지" 등의 사고는 이상주의적 관점이며, 너무 순진한 관점일 수 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우리 속담처럼, 지나친 이상주의적 관점은 결국 중국에게 크게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한국을 침탈한다 해서 그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어차피 국제 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철저히 이익에 따라 움직이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도 불사하는 것이 국제 관계이므로, 중국의 한국 침탈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미리미리 대비무환의 태도로 막아야 한다.

중국에게 크게 침탈을 당한 후 "중국이 그럴 수 있나? 정말 중국은 나쁜 나라"라고 원망하고 질타해 봐야 소용이 없다. 냉엄한 국제 질서를 모르고 순진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항상 냉엄한 결과이다.

문제는 여기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어차피 나날이 먹고 살기 바빠 국제관계가 어떻고 국제관계 속에



▲해당 보고서 표지. ©국정원

서 살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것을 위해 무언가를 할 능력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이런 일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지혜로운 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 즉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 언론인들, 기타 주요 리더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에 예로 든 사람들은 때로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한 원대한 이익보다 눈앞의 이익에 더 눈길이 가는 경우가 많다. 중국이 한국의 핵심 리더들에게 거대한 돈이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한 쾌락, 또는 특별한 사적 관계 등을 만

들어 정치인들을 공략하면, 정치인들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 장기적으로 한국에 불리한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펼쳐지는 다양한 대(對) 중국인 정책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중국에 의해 매수당한 정치인들의 행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바쁘고 힘들지만, 도대체 어떤 정치인들이 이런 매국노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피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안승오 교수(영남신대)

사마리안퍼스 · 크리스천에이드, 미얀마 참사에 대응

국제 기독교 구호단체들은 3월 28일(이하 현지시각) 미얀마 중부와 태국 일부 지역에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구호품 제공과 인력 구조에 힘쓰고 있다. 규모 6.4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하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져, 1,700명 이상 사망하고 수만 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마리안퍼스와 크리스천에이드는 오랫동안 미얀마에서 활동하며 지진에 대비해 왔다. 사마리안퍼스는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에 대응한 이후 미얀마에서 봉사 중이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 사무소를 운영했다. 크리스천에이드는 수십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통해 미얀마 지역사회와 협력단체를 지원해 왔다. 특히 지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중부를 지원했다. 사마리안퍼스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재난 지원 대응팀을 파견했으며,



미얀마 지도. ©셰키나 뉴스 유튜브

미얀마에 약국, 응급실, 실험실, 임시 병동, 두 개의 수술실 등을 갖춘 응급 야전 병원을 세울 예정이다. 사마리안퍼스의 DC-8 제트기는 28명의 의료 및 재난 대응 전문

가를 태우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버러에서 출발할 계획이며, 정수 시스템, 비상 대피소 물품, 위생 키트, 손전등 등 추가 구호품도 함께 운송될 예정이다.

사마리안퍼스 대표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이 파괴적인 지진으로 미얀마와 태국이 흔들려 최소 1,700명이 사망하고 전체 지역사회가 폐허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으며, 여진이 계속되면서 아무것도 없는 야외에서 잠을 자고 있다. 사마리안퍼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진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과 봉사하는 우리 팀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

크리스천에이드도 지역 파트너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피해를 파악하고 구호 활동을 조율하고 있다.

크리스천에이드는 만달레이의 한 댐이 붕괴돼 저지대가 침수되고 위기가 심화됐다는 보고를 받은 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긴급 자금을 비롯해 깨끗한 물, 식

료품, 임시 쉼터 등을 제공했다. 또 긴급 기부 페이지를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기부와 함께 기도해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편 수색 및 구조 작업이 계속됨에 따라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미얀마는 이미 빈곤, 갈등, 이주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크리스천에이드 줄리 메히건(Julie Mehigan) 아시아·중동 및 유럽 책임자는 "미얀마는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나라 중 하나다. 이 가슴 아픈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미얀마에는 갈등과 이주로 수많은 이들이 실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기도와 선물은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부터 시작 \$20부터 시작

*단, 컬러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작은 나눔이 모여 더 큰 사랑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희망 나누기

오픈청지기재단과 아름다운 희망 나누기를 함께 할
2024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단체를 알려드립니다

Open Stewardship Foundation은 한인 사회 및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확장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www.openstewardship.com

오픈청지기재단 수혜단체 공지

2024 OPEN STEWARDSHIP PROGRAM RECIPIENTS LIST

ABC Education Foundation
Accompany Worldwide
Altogether In Love
America Wheat(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Inc.
Asian American Job Training Center
Being Built Together
Beyond Blindness
Blessed Sacrament Sisters of Charity
Bridgeway Family Life Center
Cal Give Foundation
Christian Counseling Services
Circle of Friends in Love
City of Refuge Mission Center
Communities Actively Living Independent & Free (CALIF)
Divorce Recovery Ministry, Inc.
DK Foundation
Dream Tree Youth Leaders Foundation
Edenhurst Community Center
EIS Family A38
EPICENTER Foundation
Eudemonia Medical Service
Family Saver Center
Father's Table Mission
FRIENDS HELPING FRIENDS WITH SPECIAL NEED (Good Seed Mission)
G.I.F.T (Global, Individual, Family, Transformation) for Community
Good Hands Foundation
Good Neighbors USA
Grace Community Service
Green Pastures Forum
Hanmi Family Counseling Center
Happy Village
Home on the Green Pastures
Hope Sight Mission Association
Hyosarangus Mission
Indivisible Arts
Intellichoice
KOA Dance Federation
Koinonia Mission (Help People In Need)
Korea Town Senior and Community Center, Inc.
Korean American Coalition
Korean American Community Coalition
Korean American Community Services, Inc.
Korean American Dementia Center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Inc. (KFAM)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Inc. (KAFLA)
Korean American Seniors Association of Orange County (KASAOC)
Korean American Senior Citizens League- Santa Clara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KASEC)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oundation
Korean Resource Center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of S.F Valley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KYCC)
L.A. Mom and Dad Mission
LNC (Love & Care) Foundation
Love In Music
Mental Health Family Mission
Micah Healing Ministry
National Veterans Foundation
NEW SPRING RECOVERY CENTER
North California Life Line
OASIS Center International
PAVA World
Project Kinship
San Francisco & Bay Area Korea Center
Shalom Center for T.R.E.E. of Life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Siloam Healing Mission Center
Somang Society
South Bay Ko-Am Senior Center, Inc.
Street Company
Texas Milal Mission
The Angeles Dream Foundation
The Branch of Almond Tree
The KAWA
The LOCK Ministry
The Well Mission
Thomas House Temporary Shelter
UDLA (Unification of Disabled Latin Americans)
Vision Care Service West
Vision Youth Charity Center
Voice of Calling NPO
Watered Garden Mission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Women Organizing Resources, Knowledge and Services
World Mission University
Youstar Foundation
Youth Business Alliance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

